



물로 만들어진 문, 무지개

무지개는 하늘에 걸쳐서 나타나는 반원형 고리 모양이에요. 비가 내리고 난 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물방울이 햇빛이나 달빛에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무지개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고유어로서 ‘물’과 ‘지개’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에요. ‘물’은 水(물 수)를 뜻하고 ‘지개’는 戶(집 호, 지개 호)나 門(문 문)을 뜻해요. 따라서 ‘물로 이루어진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로 만들어진 문을 ‘똑똑’ 두드리시며 “내 뜻대로 잘 살고 있지?”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그 문을 활짝 열고 “네,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성경퀴즈

말씀을 떠올리며 퀴즈를 풀어요.

① 방주를 만든 사람은?

② 방주에 탄 사람의 수는?

③ 방주의 주재료가 된 나무는?

④ 노아가 방주 안팎으로 꼼꼼히 칠한 것은?

⑤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⑥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주신 증표는?

⑦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 톡톡!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도 적어 봐요!

